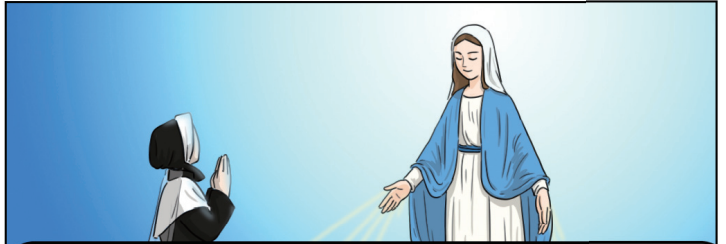


# 제9화 기적의 메달을 주신 파리의 성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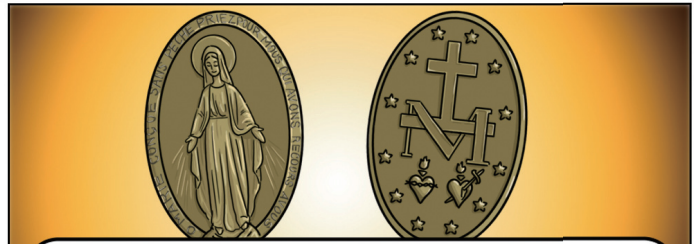
글·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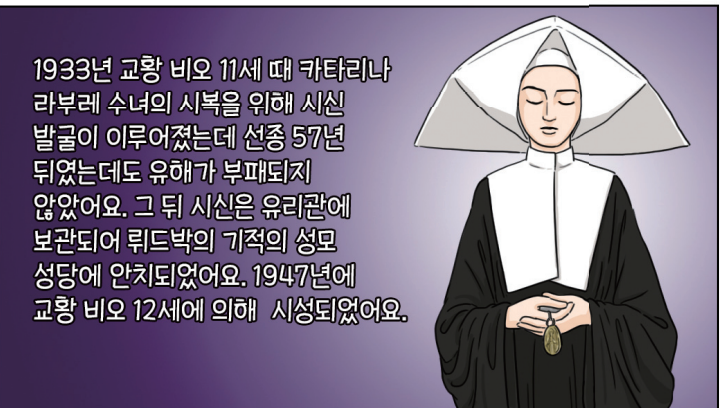
1830년 7월18일, 잠 들어있던 카타리나 수녀는 어린 아이의 목소리에 깨어 그 소리에 인도받아 성당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모님은 프랑스에 닥쳐올 위험과 그로 인해 또 다시 십자가와 신앙이 모독을 당하고 파리의 대주교가 고통 당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4개월이 지난 뒤 두번째 발현에서 금빛 십자가가 달린 지구를 손에 들고 계셨고, 카타리나 수녀에게 메달을 만들 것을 당부하셨어요. 메달을 몸에 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내려질 것이라 하셨어요.



메달의 앞면엔 죄를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성모님이 조각되어 있고, 그 주위엔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새겨져 있어요.



## 알아두면 쓸모있는 파리의 성모에 관한 이야기

1. 파리의 성모를 '뒤편의 성모'로도 부르는데 뒤편은 파리의 거리명이다.
2. 기적의 메달의 공식 명칭은 '원죄 없으신 잉태의 메달'이었다.
3.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주회함에 공식적으로 모시는 성모상은 바로 파리의 성모의 모습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상이다.
4. 카타리나 수녀는 고해사제인 알라델 신부를 통해 발현사실을 알렸다. (익명의 제보자로 볼 수 있다.)

사실인가요?

OK!

